

‘푸른도서관’ 건립 꿈꾸는 선생님의 책사랑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이하 ‘책따세’) 대표 허병두(42·송문고 국어과) 씨는 1989년 3월 중순 송문고등학교에 부임하게 된다. 열악한 교육 현실에서 2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다가 환멸감을 느껴 사직서를 쓴 지 얼마 안 되어 모교로 오라는 제안에 응한 것이다.

“입시교육의 희생자는 학생뿐 아니라 교사도 포함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제 모습은 삼류학원 강사나 다름 없었죠. 아이들을 존중하는 대신 입시성적 향상이 최고의 목표인 양 강제적인 ‘자율학습’을 시키는 우리나라 학교 현실을 보면서 심각하게 진로에 대해 갈등했습니다.”

그는 모교에 와서 다행스럽게도 학교도서관을 찾게 된다. 그는 도서관 책누리를 창립하고 그해 학생의 날에 맞춰 그간 십수년 동안 닫혀 있던 학교도서관을 재개관한다. 이후 그에게 학교도서관은 교사로서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면서 아울러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 나아가 인권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써 의미를 갖게 된다.

그가 대표로 있는 ‘책따세’의 운영진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경험을 가진 일반교사와 사서교사들이다. 허병두 씨는 교육 현실에 문제의식을 갖게 된 이들이, 학생들의 생활공간이면서 바람직한 교육의 장으로 확장되어야 할 학교 도서관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었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학교도서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담 바깥으로까지 나가야 한다는 그동안의 깨달음도 한몫했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학교도서관을 바람직한 교육공간으로 마련하기란 궁극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보면 당연한 귀결이었던 셈이다. 이렇게 그와 뜻을 맞춰 모인 선생님들은 ‘책따세’라는 이름으로 척박한 학교와 사회 속 청소년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과 가치를 전하기 시작한다.

“‘책따세’는 2010년도에 청소년을 위한 푸른도서관을 건립하자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을 넉넉히 잡고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함께 뜻을 같이하는 분들에게 모든 자료와 경험을 나누겠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청소년을 위한 추천도서 목록작성, 《선생님들이 직접 겪고 쓴 독서교육 길라잡이》와 같은 관련 도서 발간, 강연회 개최와 연수 진행 등 필요한 준비 과정을 계속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1998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이들의 성과 중에서 일반인들의 반응을 가장 크게 얻은 것은 추천도서 목록 작성과 발표다. ‘책읽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책’,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책’ 등 주제까지 세분화해서 맞춤형 책 정보를 전하는 허병두 씨는 수많은 책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일이 시간도 많이 들고 가장 힘들다고 말한다. 특히 주제별 추천도서 외에 여름, 겨울방학 때마다 분기별로 추천도서를 선정할 때의 제정신이 아닐 정도란다. 그렇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책따세’ 선생님들은 추천도서목록 작성의 노하우와 원리를 공개하는 길라잡이 책을 준비하고 있다.

“‘책따세’가 좋은 책을 골라내듯이 더 많은 선생님들이 양서를 찾아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추천작업을 체계화하면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청소년을 위한 푸른도서관 건립을 꿈꾸는 집단이 지역별로 많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현재 ‘책따세’ 홈페이지(www.readread.co.kr)에는 매달 약 1천여 명이 새내기회원으로 가입한다. 이미 1만2천여 회원들

이 가입하여 홈페이지에서 좋은책 추천도서 목록을 활용하고 책 따세와 뜻을 나누고 있다. 추천도서 선정에 참여하는 30명의 운영진들은 좀더 공정한 방법으로 좋은 책을 선정하려고 애쓴다. 반드시 세 명 이상의 선생님들이 읽어 본 후, 아이들에게 읽혀 반응을 확인하고, 다시 선생님들의 전체 토론을 거쳐 책을 선정하는 과정은 책 한 권을 만드는 것만큼 많은 공을 필요로 한다. 그 중에는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선정되지 못한 책이 있기도 하다. 허병두 씨는 이런 과정 속에서 늘 엄밀한 비평이 오가고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현재 '책따세' 활동 외에도 다양한 책 관련 매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KBS의 <TV, 책을 말하다>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신문과 잡지, 관련 단체와 기관에서 활동하면서 거의 모든 일상을 책과 함께한다. 그는 이처럼 종횡무진 여러 곳에서 양서를 소개하면서 스스로 내적인 충만감을 느낀다고 한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책을 발견해서 많은 이들에게 소개하게 되었을 때 나름의 보람을 느낀다. 그가 이렇게 독서문화에 관심을 갖고 도서관 건립에 앞장서는 이유는 학창 시절의 아픈 기억과도 관계가 깊다.

“도서관에 가고 싶어도 그곳을 찾을 수 없는 불행한 학생이었죠. 학창 시절 내내 도서관은 닫혀 있었거든요. 하긴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인간답게 대우받는다곤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 그런 바람은 사치였겠지요. 닫혀진 교육체제도 그렇고, 체벌 문제도 그렇고, 인간을 인간답게 존중하고 키워주지 못했던 것이지요.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는 청소년들에게 훗날 '다시 다니고 싶게 만드는 학교, 다시 가보고 싶은 도서관'을 만들어주려고 한다. 이 뜻을 반영하듯 승문고등학교의 도서관은 다른 학교 도서관과는 다르다. 허병두 씨는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책을 보라고 권한다. 서가 사이에 편안한 안락의자가 놓여 있고 책상 위에는 장기관이 놓여 있기도 하다. 그는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누워서 책보기를 권하며 학교도서관이 책 읽는 놀이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서가 중요하다는 말은 잘 하지만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설득의 근거가 약한 것이죠. 저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책에 관심이 없

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독서문화에 대한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람을 담아 '책따세'는 추천도서 목록 작업의 체계화에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이 굳이 추천도서 목록을 찾지 않아도 양서를 고를 수 있는 눈을 키우도록 길트기 작업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그가 말하는 '책따세'의 책임이다.

“'책따세'를 그저 책판매를 위한 홍보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출판인들이 일부 있습니다. 물론 책이 잘 안 팔리는 현실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책따세'를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한다면 근시안적인 발상입니다. 오히려 '책따세'가 자기 몫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복돋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010년도에 푸른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책따세'의 노력에 성원을 보내면서 묵묵히 좋은 책들을 많이 만들면 '책따세'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 같이 '책따세'는 도서를 추천할 때 외부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부당하게 권력화되지 않도록 스스로 부단히 경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익 집단이 아니거든요.”

'책따세'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푸른도서관'은 중·고등학교 학생뿐 아니라 학교 안팎의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있는 모든 1318 청소년들을 품는 책의 집이다. 나아가 '책따세'와 함께 뜻을 같이하는 모든 이들의 체계화된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현재진행형의 모태 도서관이다. 허병두 씨는 이러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오늘도 '책따세' 선생님들과 함께 독서 삼매경에 빠져든다. 이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주는 도서관'을 청소년들에게 선사하려는 선생님의 부단한 '책사랑', '인간사랑'의 방법이다. **☞**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